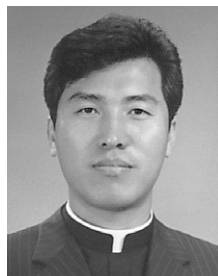


주일의말씀

용서의 이유

김영수 시몬 신부
압량성당 주임



누군가 자신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일곱 번 용서해 주면 되겠느냐는 베드로의 나름 통 큰(?) 질문에, 예수님께서서는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 일곱 번(혹은 일흔 번의 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용서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혹은 어느 정도까지만 하고 그 이후로는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설령 내키지 않더라도 해야만 하는 의무이며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실천해야 하는 도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용서란 행위가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는 우리들이기에, 이 말씀을 들으며 왜 그렇게 용서해야만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의문에 대해 예수님께서서는 무자비한 종의 비유를 통해 그 이유를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십니다. 이 비유를 보다 피부에 와 닿게 잘 느끼기 위해서는 일단 달란트와 백 데나리온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 단위인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사람들이 수급하는 일반적인 하루 노동의 대가 정도의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한 달란트는 얼마일까요? 한 달란트는 자그마치 육천 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지는 어마어마하게 큰 화폐 단위입니다. 한 달란트는 당시 노동자가 약 16년을 일해야만 겨우 벌 수 있는 큰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달란트는 16만 년을 일해야 구경 할 수 있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금액입니다. 반면에 백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가 3개월 남짓 노동해서 벌 수 있는 금액입니다. 한 사람은 16만 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을 빚졌고, 또 한 사람은 3개월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을 빚졌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 비유의 소재입니다. 그 금액의 규모로 볼 때는 분명

히 비현실적인 비유입니다. 한 개인이 어떻게 16만 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을 빚질 수 있었습니까? 더구나 일단 달란트의 빚 모두를 탕감 받은 그 사람이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의 빚을 진 다른 사람을 탕감해 주지 않고 무자비하게 대하는 그 모습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일단 달란트라는 엄청난 빚을 탕감 받았다면 당연히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기꺼이 탕감해 줘야 하는 것이 도리일 텐데 그 사람은 어리석게도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무자비한 사람을 이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일 교우 여러분들 각자가 이런 천문학적인 빚을 탕감 받았다면, 여러분에게 작은 빚을 진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탕감해 주겠지요.

일단 달란트나 빚을 질 수 있는 사람이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개인에게 일단 달란트라는 빚이 있다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유는 우리를 직접적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거저 받고 있고, 또 많은 죄를 거저 용서받고 있습니다. 마치 일단 달란트가 현실적으로 헤아릴 수 없는 큰 금액인 것처럼, 우리가 하느님께로부터 받는 것들 역시 헤아릴 수 없이 큰 것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받고 있기에, 거기에 비하면 형편없이 작은 것들이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많은 것을 용서받고 있기에 우리 역시 우리에게 잘못한 이를 용서해야 하는 것은 아량이나 배포의 차원이 아니라 이성이 있다면 당연히 지켜야 하는 도리이며 의무입니다. 

생명의말씀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마태 18:22 참조)

제1독서 : 집회 27,30-28,7 제2독서 : 로마 14,7-9 복음 : 마태 18,21-35.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좋으신 분을

문화홍보실

우리 민족의 제일 큰 명절인 한가위가 목전에 다다랐습니다. 많은 이들이 고향을 찾고 성묘를 하기 위해 길을 떠납니다. 오랜만에 가족 친지들이 모두 모이고 은인들에게는 안부를 여쭙습니다. 때로는 피곤하고 귀찮다는 생각도 들지만, 사람 된 도리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 된 도리, 한가위 명절의 중심이 되는 큰 뜻은 바로 ‘감사’입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이 대대로 소중하게 여겨 온 지혜이지만 또한 주님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씨를 뿌리고 김을 맨 것은 나이지만, 곡식이 여물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 살고 있는 것도 하느님께서 태초로부터 정하셨고 또 부모님께서 낳아 길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저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모두가 남에게 은혜를 입고 서로 폐를 끼치면서 살아갑니다. 은혜를 입고도 고마운 줄을 모르면, 사람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바로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지만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루카 12,21)이 되는 것입니다.

한가위에는 가장 먼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서 주님을 섬기게 된 것은 우리 계획에 따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 나고 훌륭해서도 아니며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몸과 피를 모시게 된 것만 해도 무한히 감사를 드려도 모자랄 일인데, 주님께서는 거기에 더하여 우리가 주님께 봉헌할 제물을 마련해 주시고 또 우리가 바치는 보잘 것 없는 제물을 기쁘게 받아 주십니다.

한가위에는 먼저 가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가위가 감사를 드리는 명절이라면, 부모님들과 조상들, 그리고 세상을 떠나신 은인들을 기억하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빠질 수 없습니다. 이미 이승에 계시지 않으니 그분들의 은혜를 이 세상에서는 갚을 수 없지만, 모든 은혜의 주인이신 하느님께서 우리 대신 갚아주실 수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혹시 남은 보속이 있다면 아직 살아있는 내가 대신 할 수 있습니다.

한가위에는 가장 불쌍한 이들을 기억합니다.

한가위를 맞아도 기쁘지 않은 이들이 많습니다. 고향을 찾거나 차례 상을 차릴 만한 여유도 없는 이들, 반겨줄 친지조차 없는 이들도 있습니다. 온 나라가 명절 분위기에 떠들썩한 만큼 이런 이들의 가슴은 더욱 쓸쓸할 것입니다. 특별히 기억해야 할 불쌍한 이들은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연옥 영혼들입니다. 이 감사의 때에 우리가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무엇인가 위로가 될 만한 일을 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넉넉한 나눔의 팔월 한가위가

박성규 엘리시오





오늘의 미사

연중 제24주일

입당성가

34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화답송

◎ 주님은 자비롭고 니그라우시며,
분노에는 더디시나 자애는 넘치
시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봉헌성가

511 미약하온 우리 제물

영성체송

하느님, 당신 자애가 얼마나 존귀
하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당신 날
개 그들에 피신하나이다.

파견성가

285 103위 순교 성인

영성의 향기

:: 고통에 대한 감사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 보여 주신 하느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통을 주님의 수난에 합쳐서 세상을 구원하는 제물로 사용하시는 하느님의 착하신 뜻을 알아듣고, 나의 작은 희생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데 쓰이는 것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몸소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어 우리가 겪는 고통을 함께 겪으신 예수님께서서는 고통에 거룩한 목적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고난이나 슬픔은 우리 삶의 핵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느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시선을 두는 것이 우리들의 생명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렇게 하심으로써 십자가의 고통을 기꺼이 참으셨고, 우리에게도 당신이 하신 것처럼 하라고 촉구하십니다. 우리의 아픔들은 일시적이고 작지만 보상은 영원하고 무한히 큰 것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추어 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로마 8,17-18)



- 교구 사목국 권가타라나 수녀 -

교부들의 지혜

배고프고 목마른데 어떻게 행복하다고 하는가?



주님은 “옳은 일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림은 육신의 주림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 주림은 그 충족을 옳은 일에서 구하기 때문입니다. 정의를 목말라하는 영혼이 이미 그 감미로움을 맛보지 않았다면 그것을 욕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정의를 먹고 마시고자 하는 욕망으로 심취해 있을 뿐 아니라, 하느님을 사랑하라 하신 계명의 진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은 정의를 사랑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 성 대 레오 교황의 <참된 행복에 대한 강론>에서 -

정하권(폴로리아노)몬시뇰 회경축 감사미사

일시: 9.15(목) 15:00
장소: 대구가톨릭대학교 효성캠퍼스(하양) 성당
문의: 대구가톨릭대학교 교목처, 850-3095
※개별초대 생략, 성직자는 장백의·영대 지침

모임/행사

예비신학생 모임: 9.18(일) 14:00

1~3대리구 및 입시반: 남산동 신학교
4대리구: 성동성당, 죽도성당
5대리구: 5대리구청, 평화성당
가톨릭운전기사사도회 월례회
일시: 9.21(수) 14:00, 가톨릭교육원

성소/피정

한국성모의자애수녀회 성소모임

일시: 9.18(매월 셋째 일) 14:00, 경북철곡 본원
문의: (010)3113-6219, <http://smm.or.kr/>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성소모임

일시: 9.17(토) 14:00~17:00
장소: 서울 가양동 수도원
대상: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사도직에
관심 있는 청년/미혼 남성
문의: (010)3800-1579, www.johnofgod.or.kr

빈센트수녀회 성소모임(성지순례)

일시: 9.18(일) 08:00, 수원 본원

성빈체시오아바오로사랑의말회 성소모임

일시: 14:00 (매월 셋째 일요일)
장소: 군포수녀원 (경기도군포시 군포성당 옆)
문의: (010)6625-0927

교육/모집

9월 가나강좌 (1인당 2만원, 당일접수)

일시: 9.18(일) 10:00~17:00
장소: 가톨릭의료원 의대 마리아관
문의: 641-5678 / (010)8853-7458

제10기 어머니학교 개강

일시: 9.29(목), 문의: 2대리구청

2011년 2학기 신학강좌 수강생 모집

신학(교회법, 성사론, 전례, 몸의 신학,

동양철학, 선교신학), 신약 및 구약성경,
특별(수덕신학, 생활법률, 사도행전, 심리학)
다음 카페 검색: 신학교육원
개강 및 문의: 660-5105-6

파스카청년성서모임 팀 모집

단계: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문의: 255-1582 (화~토 14:00 이후)

가톨릭문화관 교육생 모집(476-6211)

통기타, 바이올린, 플루트, POP, 초크아트

스페인어 초급반 모집

기간: 기초반 3개월 과정, 대상: 성인
문의: 가톨릭근로자회관, 253-1313

더 나은 혼인생활을 위한 - ME주말

대구292차: 10.7(금) 19:00~9(일) 18:00
장소: 한티피정의집, 문의: 983-0521
사랑의 대화 방법을 체험하게 됩니다.

통 큰 선교로 통 큰 결실을!

제45기 선교대학

일시: 10.15(토) 10:00~16:00, 계산문화관
대상: 선교에 애정을 가진 모든 분
신청비: 1만원(교재, 식대), 지도신부: 이판석
문의: 한국천주교가두선교단, 781-6100

가톨릭 요셉발견강회 강좌 (발은 제2의 심장)

일시: 매주 토요일 14:00~16:00(10회)
문의: 476-7774 (교재 및 도구포함 10만원)
홈페이지: www.footfather.com

교회음악 지도자 오디션

오디션: 9.17(토)14:00, 개강: 9.24(토)
곡목: J.S.Bach의 Invention 3성부 중 한 곡
성가 중 한 곡
문의: 프란치스카눔, (070)4266-0045

대구파티마병원 13차 호스피스

자원 봉사자 신규 교육

일시: 9.2X(월)~27(화), 본 병원 3층 제1강의실
선착순: 30명, 교육비: 2만원
문의: 940-7059, 7415(입금 후 전화접수)
대구은행 253-13-000810, 이혜숙

가르멜 기도학교

일시: 10.29(토)~30(일)

매월 마지막 주, 1박2일 피정식

장소: 마산 가르멜 피정의 집

대상: 고등, 대학, 일반(선착순: 20명)

문의: (010)9475-5254, 회비: 4만5천원

이흥구 스테파노의 이콘(Icon) 강좌

내용: 기초에서 완성까지 실기 및 이론수업
주최: 한국가톨릭이콘연구소
지도신부: 김도요셉(대구가톨릭미술가회지도신부)
장소: 홀리아트갤러리 & 주노아트갤러리
문의: (010)3588-5252

직원 채용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 직원 모집

모집부문: 청소년수련활동(신앙캠프)담당자(남자)
자격: 교리교사경력 2년 이상, 관련자격증 우대
제출서류: 세례증명서, 교리교사경력증명서
문의: 656-6655(내선204)
접수: 9.24(토)까지 방문 및 우편

안내

군위묘원 미사

일시: 9.12(월) 14:00, 군위묘원
미사시간이 오전11시에서 오후2시로 변경되었습니다.

군위묘원 관리비(2차분) 납부 안내

2002년 1월 1일 이전에 장례를 하신 묘주께서는
묘원관리비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비 미납 시 무연고묘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문의: 교구청 관리과, 250-3003

군위묘원 성묘안내

추석 당일에는 많은 성묘객으로 인해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가급적 추석을
전후해서 성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구법원공시 (253-9550)

아래 공시되는 분은 교구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명: 김영희(수산나)

**9월 군중후원회 신평성당 미사가 추석
명절 관계로 취소되었습니다.**

코리아알트만 시스템

혼인을 앞둔 교우 자녀와
벌어네거리
알트만 미혼 남녀의
결혼을 상담합니다.
코리야
알트만
호 텔
그랜드
호텔
황금네거리
박복순(오델리아)
• 지하철 2호선 벌어역 4번 출구 •
TEL 743-4488 FAX 744-1594

라식, 백내장수술 전문안과

대구연세안과

IFS-아이리식, 알티산, 백내장수술
의 학 박 사 원장 박 중 원 (소시모)
현 연세대의학교수
(지하철1호선 영대병원역 2번출구)
☎ 626-8881~5

한 신 주 백

신축 및 주택수리
지붕칼라강판 판별공사
지붕 우레탄폼 방수
방충창고 보온단열
053) 555-5432
박일주(매대오) 011-529-7501

소아 난치병 전문 한의원 / Since 1999

성모아이한의원

www.sungmoai.com
• 잦은감기(열, 비염, 천식, 중이염)
• 틱, ADHD
• 난치성 아토피
• 연어발달장애, 지체
• 식욕부진, 성장, 아노증
원의학박사 김성철(비오)
동국대 한의학과 외래교수
☎ 592-1275, 593-1275

근본치료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병원

안심내과

<30년 전통의 (구)이상계 내과>
내과 전문의 5인 진료 765-3771
심장 · 순환기, 소화기 · 내시경 전문
공단검진, 5대암검진, 각종 종합검진
이상계(비오로), 이준엽 · 김영섭(베드로) 외 2인
들안길 베게리~황금성당 사이

금 · 보석 · 시계전문점

미석 특허청 등록업소

대표 임중화(바실리오)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 3번출구 대구역 방향
☎ 423-6336, 011-809-3003

28년 전통 성가정 의만남

성심결혼

국가등록업체 · 보증보험가입업체
* 전문직종 및 초혼 재혼 다량 확보 *
☎ 558-3003, 644-4007
비산네거리(서부초등학교 옆)
류성설(마리아)

건강백세 내과

건강검진, 암검진, 내과진료

벌어 네거리(752-0141)
(지하철 2호선 벌어역 4번출구)
원장 채희갑(바오로)